

동굴에 서식하는 *Kurasawatrechus* 속 먼지벌레의 1신종

박종균, 백종철¹

상주대학교 잠사곤충자원학과, ¹순천대학교 농생물학과

우리나라에서 일반인에게 알려지거나 또는 알려지지 않은 동굴이 전국적으로 900개 (동굴탐험연구소, 1995) 로 조사되어 있다. 그 동굴들은 내부 환경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나름대로 하나의 동굴내 생물상을 구성하고 있으며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다.

그러나 이러한 수많은 동굴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동굴에 서식하는 생물상에 대한 각 분류군별 전문가들에 의한 조사연구는 이제까지 거의 전무하며 그대로 방치된 상태이다.

최근 국내외적으로 자국의 생물자원 보존에 대한 관심이 환경단체, 학계 그리고 언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보존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의식 속에서도 생물자원 보존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.

동굴성 먼지벌레류는 눈이 퇴화되어 전혀 볼 수가 없으며(가끔 기능적 눈을 가지는 경우도 있음, Ueno, 1968) 더더욱 동굴 밖으로는 나갈수가 없다. 이러한 관계로 대부분 종 들은 외부와 그리고 다른 동굴과 완전히 격리되어 있다. 그러므로 비록 발견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의 발견종들이 동굴환경에 따른 그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세계 최초 발견되는 종(신종)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. 한국곤충명집(ESK and KSAE, 1994)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Trechina 아족의 동굴성 먼지벌레류는 6속의 11종으로 보고하고 있으며, 그 중 진동굴성은 *Kurasawatrechus*속 4종으로 기록하였다.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이 종들은 각 4개의 다른 동굴에서 발견 한 것으로 한국명은 그 발견된 동굴명을 사용하였으며 물론 세계 최초 보고종이다. 그러나 곤충명집 이외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는 *Kurasawatrechus*, *Coreobelemus* 그리고 *Gulaphaenops* 등 3 속에 모두 6종(Ueno, 1969; Ueno and Namkung, 1968) 이 기록되어 있다. 동굴성 먼지벌레류의 대한 중요성은 댐 건설등으로 언제 수몰될지 모르는 위기에 초해있으므로 우리의 귀중한 생물자원이 사라질 우려가 많다는 것이다(실제로 1969년 충북 청풍명혈 동굴에서 채집되어 Ueno에 의해 신종으로 기록된 *Coreobelemus parvicollis* “청풍장님좁먼지벌레” 는 충주호 건설로 동굴이 수몰되어 더 이상 서식 확인이 불가능함).

본 연구는 2000년 4월 문경의 호계-황티기동굴 탐사시 발견되었던 먼지벌레로서 *Kurasawatrechus*속 의 신종으로 밝혀졌기에 보고하고자 한다.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진동굴성 먼지벌레류는 모두 7종이된다.